

하루를 시작하며



권희진
디자이너블루 서점 대표

'동네 서점 사용법' 캠페인

동네 서점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여러 이야기를 해 오면서 본 칼럼에 '서점에 올 때도 예의가 필요하다'란 글을 쓴 적이 있다. 각각의 서점마다 그 공간에 맞게 세워 놓은 규칙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혹시라도 동네 서점을 가게 된다면 그 부분을 먼저 확인해서 이용하면 좋겠다는 내용이었다.

는 것인데, 이 내용은 어느 서점에서나 지켜져야 할 공통적인 주의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동네 서점 사용법은 다음의 네 가지이다. 첫 번째, 도서 촬영을 금합니다. 창작자의 저작권 보호에 동참해주세요. 두 번째, 모든 도서는 판매하는 상품입니다. 도서가 상하지 않도록 조심해 다루주세요. 세 번째, 음료는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보세요. 물에 취약한 책을 지켜주세요. 네 번째, 큰 가방은 테이블에 올려놓고 보세요. 분실 방지 및 편한 서점 이용을 위해 동참해주세요.

자제가 금지된 건 아니지만 구입하지 않은 도서의 표지만 클로즈업하거나 본문 내용을 찍는 것에 대해서는 엄격히 금한다는 내용이다. 며칠 전의 일이었다. 4월 말에 출간된 내 책의 사인본 주문이 있어서 책에 사인을 하고 있었는데, 손님 한 분께서 직접 쓰신 책이냐고 관심을 보이며 책을 좀 살펴보겠다고 하셨다. 그러더니 갑자기 눈앞에서 대놓고 한 쪽자의 내용을 통째로 사진으로 찍는 것이 아닌가. 놀라서 바로 제재를 가했더니 "작가 본인 책임데도 안 되나요? 너무 좋은 내용이라서 블로그에 공유하려고 한 건데"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서점에서 작가가 앞에 있는데 그 사람이 쓴 책을 구입도 안 하고 본문 페이지를 찍으면서 저렇게 말하는 건, 거창하게 얘기하자면 어떤 감독이 만든 영화를 그 사람 바로 앞에서 대놓고 불법 다운로드하는 것과 비슷한 경우일 것 같

았다. 하지만 최대한 이해하실 수 있게 설명을 해드리고 그러면 안 된다고 하자 "근데 대형 서점에선 왜 괜찮아요?"라고 다시 물으셨다. 당연히 대형 서점에서도 본문만 사진으로 찍는 일은 하면 안 된다. 그 분이 때론 책에서 필요한 부분들만 사진으로 찍고도 지금까지 아무 일 없이 넘어갔다면, 대형 서점은 넓은 서점 내에서 일일이 그런 사람들을 찾아 제재를 가할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일 뿐이지 그 행동이 괜찮아서가 절대 아니다. 제주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동네 서점들이 늘어남에 따라 이런 캠페인이 가능해진 건 분명 상당히 긍정적인 현상일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중요한 부분들을 정작 작은 동네 서점들이 나서서 알려야 한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기도 하다. '동네 서점 사용법'이라고 이름 붙이긴 했지만 사실은 모든 서점에서 지켜져야 할 일이다.

사설

파업 장기화 안된다... 서민경제 '직격탄'

전국택배노동조합 전면파업 여파가 국내 농민 소상공인에게 '직격탄'이 되고 있다. 아직 부분적이지만 농산물 직거래, 신선식품의 경우 택배 배송지연이나 접수 거부 등의 사례로 벌써 아우성이다. 서민경제가 코로나19로 가뜰이나 힘든 상황에서 택배 파업까지 겹치고, 장기화로 이어지면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한다는 전망에 초긴장 상태다. 택배노조 전면파업은 15일 이래를 맞으면서 제주지역도 배송 우려에 대한 현실화로 물량이 고 있다. 국내 택배 노동자 400여 명중 총파업 참여자는 전체의 17%인 70여명이다. 우선 택배 전면파업 참여자중 43명이 우체국 택배원이어서 제주내내권을 중심으로 한 일반 택배 배송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평소라면 주문후 1~2일만에 도착했지만 일부 지역서 2-3일 늦어지는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다. 또 상인 대상 신선식품이나 일정 규격 이상 박스 등에

대해 접수 자체를 거절당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여기에다 초당옥수수나 단호박 출하기를 맞은 농민들은 배송차질로 판매 적기를 놓칠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농산물 특성상 신선도가 '생명'이고, 판매시기에 따라 가격등락에도 영향을 줘 배송차질로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 농민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가뜰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맞은 택배 파업 탓에 '실사 가상' 고통을 호소한다. 일부 매출 호기를 맞아야 싶더니 택배 파업을 맞았고, 장기화로 이어져선 결국 안된다는 입장이다. 택배노사, 정부와 여당 등 모두가 택배 전면파업 조기해결에 힘을 쏟아야 한다. 15~16일로 예정된 사회적 합의기구 회의가 파업 철회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 특히 택배노사는 최대 피해자로 남을 수 밖에 없는 고객을 '불모'로 한 장기파업을 결코 용인할 수 없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대접은 못할망정 어르신을 학대한다니

흔히 나이를 먹는 것이 서럽다는 얘기를 종종 듣게 된다. 오로지 가족을 위해 헌신한 어르신들의 착잡한 마음이 담겨 있다. 나이 들면서 심신이 허약한데도 푸대접받는 처량한 신세를 내비친 것으로 본다. 여기에 더해 어른 대접은 고사하고 학대를 받는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제주에서 노인 학대가 끊이지 않아 슬프하다. 제주도에 따르면 국내 노인 학대 판정 건수는 2018년 158건, 2019년 146건, 2020년 159건 등 최근 3년간 463건이 발생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발생한 노인 학대(44%)가 가장 높다. 은퇴한 후에도 대다수 어르신들이 일터로 내몰리는 이유다. 인력난 노후를 우려할 어르신들이 학대를 당하고 있으니 참으로 모욕을 주거나 폭언을 하는 정서적 학대(45.1%)와 물리적 학대(36.4%)가 가장 많았다. 문제는 노인 학대 대부분이 가정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3년간 발생한 노인 학대 463건 가운데 94.1%(436건)가 집안에서 일어났다. 가해자는 아들(35.2%), 배우자(23.6%), 딸(7.8%)의 순이었다. 가족들이 자신의 부모를 학대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알다시피 지금의 어르신들은 온갖 고생을 다 겪은 세대다. 그 어려웠던 '보릿고개'를 이겨낸 어르신들이 학대에 시달리고 있어 안타깝다. 어르신들의 삶이 녹록하지 않다.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44%)이 가장 높다. 은퇴한 후에도 대다수 어르신들이 일터로 내몰리는 이유다. 인력난 노후를 우려할 어르신들이 학대를 당하고 있으니 참으로 모욕을 주거나 폭언을 하는 정서적 학대(45.1%)와 물리적 학대(36.4%)가 가장 많았다. 문제는 노인 학대 대부분이 가정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3년간 발생한 노인 학대 463건 가운데 94.1%(436건)가 집안에서 일어났다. 가해자는 아들(35.2%), 배우자(23.6%), 딸(7.8%)의 순이었다. 가족들이 자신의 부모를 학대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열린마당

무더운 여름, 청렴한 여름나기



김유란
서귀포시 영천동주민센터

이따금씩 언론에서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높인 사건이 들리곤 한다. 그렇다면 이번 여름은 청렴한 여름 나기로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을 시원하게 날려버리면 어떨까? 청렴이라는 단어를 보면 거창한 의미로 생각하겠지만 실제로 청렴을 지키는 일은 어렵지 않다. 영천동주민센터를 들어오면 가장 먼저 '언제나 친절하고 청렴한 마음으로 다가하겠습니다'라는 문구가 보인다. 하루에도 수십 번 주민센터를 왔다 갔다 하며, 이 문구를 볼 때마다 나 자신이 청렴한지를 뒤돌아보게 만드는 계기가 된다. 이렇게 사소한 생각 하나라도 자신을 반성하고 청렴해지고자 하는 마음을 담아두고 있으면 청렴한 공직자가 되는 길은 어렵지 않다. 공직자가 되기 전, 면접준비를 하면서 그리고 연수원에서 교육을 받을 때 청렴이라는 단어를 매일 들어왔다. 단 의면접을 하게 되면 스태프들의 모골지름은 '공무원에게 청렴은 어떤 의미인가?'였다. 그때마다 공무원은 국민과 국가를 연결해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만약 그 다리가 부패되고 망가져버린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을 얘기하며 공직자는 항상 청렴해야 한다고 대답해왔다. 그 당시 모범답안으로 대답을 준비하긴 했지만, 공무원 생활을 경험하지 못한 탓이었을까 청렴이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가 크게 와 닿지는 않았다. 이후, 지금 짧게나마 공직자로서 삶을 살아보니 먼저 공직생활에 입문하신 주무관님들을 행동 하나하나를 보면 청렴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큰 책임감을 느끼시고 행동하시는지 몸소 느낄 수 있었다.

그렇다면 이번 여름은 사소한 마음가짐 하나라도 청렴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 신뢰가 바탕이 되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은 어떨까?

뉴스-in

"국가 유공자 예우 위해 최선 다하겠다"

창업 교육 제이아카데미 모집
시는 간부공무원 및 읍면동장 등이 오는 25일까지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 70가구를 직접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한다는 계획.
한 관계자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위로·격려하고, 앞으로도 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예우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
이윤형기자

제주민속촌 백신 마케팅
○...서귀포시 표선해수욕장 옆에 있는 사설 관광지인 제주민속촌 박물관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장려할 목적으로 이벤트를 진행.
이번 '코로나19 전 국민 극복 이벤트'는 제주민속촌 방문객 중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확인서를 제시하면 관람료 50%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
제주민속촌 측은 "전 국민이 백신 접종을 조기에 완료해 모두가 안전한 여가 생활을 하는 날이 빨리 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벤트를 기획했다"고 설명.
진선희기자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부고
진미숙(평화희망 제주) 어머니 남평 문씨 성아(향년 86세)께서 서기 2021년 6월 15일 09시 50분경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2021년 6월 16일(수요일)
발인일시: 2021년 6월 17일(목요일) 오전 9시 30분
발인장소: 부민장례식장 9빈소
장 지: 양지공원
남편 진영창
딸 진미숙 사위 고인철
은숙 강창진
금숙 현용재
연락처: 진미숙 010-3697-5903
진은숙 010-3696-8957
진금숙 010-3692-0399

토지 급매 가격
1) 서귀포 법성 최고 전망(특A+++): 건축허가 완료, 10필지 중 토지 150-220평 단, 8개 남음 ★평당 220만원★
2) 강정동 해안도로 200m 근접: 바다 조망, 한라산 조망 최고 건축가능, 아울렛예정지구 부근, 12m계획도로 진행중, 총 480평 ★평당130만원★
3) 호근동 별장부지: 법성 조망 최고, 서호초 2분, 하나로마트 3분거리 총 681평 ★150만원★
4) 강정동 해안도로: 바다조망 한라산조망 최고, 호철 및 고급 빌라 부자용, 총 2486평 ★190만원★
5) 월평동 해안도로 초근접: 바다조망, 한라산 조망 최고, 카페부지 특 A+++ 총 1635평 ★85만원★
6) 강정동 해안도로 위 땅: 15m 건축 가능, 바다조망 카페용 펜션용, 총 376평 ★240만원★
7) 월평동: 바다조망 한라산조망 건축허가 150평, 180평, 380평, ★160만원★
010-6767-4546, 010-6275-5200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물 미국식품의약국의 SCI A급 등록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 명인 / 2009 백도라지 명인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홍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국제보청기프라자
무료청력검사, 휴일예약, 출장상담 환영
정부지원 최고 131만원 [111만원+20만원(4년간 5만원씩 나눠서 지급)]
보상판매
27,000원 36개월 무이자 할부
작은 소리도 크게 들을 수 있습니다.
이야기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습니다.
대화를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시끄러운 장소에서도 대화가 가능합니다.
소리가 왕왕 울리지 않고 잘 들을 수 있습니다.
찾아오시는 길
제주은행, 시외버스터미널, 오라퍼출소, 한라체육관, 시내수영장
대표 임창완
직접수리 · 당일착용
국제보청기 ☎ 743-7175
제주시 서광로 190 (한국병원 건너편, 국제기계 2층)

"환경 내일이면 늦으리"
(주)대승
대통령 표창수상, 환경경영시스템 14001 인증
환경부장관 표창수상, 미국 FDA Medical device
한국 신지식인 선정 (중소기업청)
친환경 제품 생산 수출업
디톡스 풋패치(파스형)
운동 전후, 피로, 통증완화, 혈액순환, 불면증 등
탈취제(식물성 인·축 무해)
광범위 악취, 동물농장, 축사, 돈사, 계사, 음식물처리장, 쓰레기장, 하수, 모기서식처, 퇴비발효 적장, 동·어 가공 작업장 등
농업용(미래의 식물방어 생물물질)
중형영양제, 응애-(알), 총채, 깎지, 수세회복
농업용 광어목초액 액비
농업용 활성탄(가스미 흡)
http://www.dsbio.net
본사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남조로3길 13-1
Tel : (064)757-3477, 782-6979
(주)대승팀장(문의사항) : 010-7542-3477